

300-6-144. 사상월보 제2권 9, 10호

■ 思想月報 2卷 수록

- 思想月報 2卷, 目次는 다음과 같다.
- 1. 朝鮮重大사상사건 경과月表(9)
- 2. 朝鮮共産黨사건 증거물寫(2)
- 3. 哨兵侮辱 피고사건 판결
- 4. 新興教育研究所사건 判決
- 5. 娼妓煽動사건 판결
- 6. 城大反帝同盟사건 판결
- 7. 司法官會議에서의 總督訓示集
- 8. 全鮮思想사건 月表(1932년 10월분)
- 9. 최근 사상사건
- ‘朝鮮重大사상사건 경과月表’에는 第5次間島共産黨사건 등 49件이 수록되어 있다. ‘朝鮮共産黨사건 증거물寫(2)’에는 조선공산당이 임시上海연락부를 설치한다고 國際共産黨에 보고한 내용인데, 責任秘書는 金丹治로 되어 있다. 宣傳部 사업 계획안에는 조직사업 연락 등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연구문제로 강령 및 규칙, 國際共産黨略史, 국제직업조합 약사, 勞農러시아의 조직 및 헌법, 러시아공산당 약사, 고려정치경제 형세, 고려혁명운동, 日本의 경제정치형세, 日本혁명운동사, 中國의 경제정치형세, 中國혁명운동사 등을 다루고 있다. 上海·滿洲에 대한 조사指令과 1926년 4월 6일 黃山(姜達永) 등의 報告도 있다.
- 林鳳元의 哨兵侮辱사건은 1932년 咸興步兵 74聯隊 陸軍步兵 一等兵 今野末藏이 9월 5일 司令官滞在旅館 儀仗衛兵 근무중, 洋服 청년이 “군대에서처럼 착검하고 서 있는가. 들어가 버려라!”라고 하며 흥분하여 꾸짖었는데 앞으로 가며 계속 조롱적 언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1932년 10월 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京城覆審法院의 控訴審에서 刑法25조를 적용, 징역 6월에 처하고 단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1932년 11월 17일 판결하였다.
- 新興教育研究所사건은 山下德治·上甲米太郎(釜山の 昆明普通學校長) 兩人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1932년 6월 23일 京城覆審法院에서 宣告한 判決에 覆審法院檢事의 上告로 9월 20일 사실심리를 하였다. 原判決을 파기하고 山下·上甲을 징역 2년에 처하고, 上甲은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 판결내용이다.
- 娼妓煽動사건은 多多良橋雄이 釜山水産시험장에 근무할 때인 1932년 7월 26일 시험장에서 左傾的 文書 4種을 등사하여 유곽 등에 頒布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出版規則 1조·3조·22조, 刑法 55조를 적용, 금고 2월에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釜山地方法院의 判決이 있었다.
- 城大反帝同盟사건은 愼弦重·曹圭瓚의 17명의 治安유지법 위반 피고사건이다. 이들은 조선공산당에 대한 검거 선봉과 本部의 승인취소로 공산주의운동의 缺點을 지적하고 인테리첸차 소부르조아 中心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노동자·빈농을 土臺로 한 下部조직과 민족독립운동을 제후시켜 공산당 재건을 위해 노력중이었다. 愼弦重 등은 1932년 6월부터 공산주의 문헌을 탐독, 공산주의 민족해방론을 알게 되어 조선독립을 희망하였다. 崔翔奎·高晶玉·崔基晟 등도 신문잡지 등에서 공산주의를 알게 되어 공산주의 연구 목적의 독서회를 조직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공산주의 이론연구·독서회 운영·실천운동 등을

하였다. 城大學生들의 조직적 활동이었으므로 재판부는 사상 정도, 전향 유무, 정황 등을 참작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1932년 11월 24일 愼弦重을 懲役 3년에 처하는 등 2년, 1년 6월 등의 선고가 있었는데, 愼弦重·李亨遠 2년형, 安福山 2년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 司法官會議시의 朝鮮總督訓示는 1912년 3월 22일, 1913년 5월 12일, 1914년 5월 13일, 1915년 5월 27일, 1917년 10월 2일, 1918년 6월 10일, 1920년 10월 6일, 1921년 5월 5일, 1922년 5월 1일에 행해졌다.
- 全鮮思想사건 月表(1932년 10월 受理)는 各地法 검사국 관내 刑法犯 및 特別犯法을 위반한 52건 397명에 관한 내용이다. 刑法犯 및 特別犯法 위반처분은 기소 20건 111명, 불기소 16건 225명, 기타 3건 5명, 計 39건 341명이며, 未濟 13건 56명이다.
- 최근 사상사건(12월 10일 조사)은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28일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思想月報 2卷 10號는 1933년 1월 15일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에서 발간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朝鮮重大사상사건 경과月表(10)
 2. 조선공산당사건 증거물寫(3)
 3. 天道敎와 民族운동에 관한 論爭
 4. 하와이에서의 조선민족운동
 5. 조선 총독부 고원·급사의 사상사건
 6. 司法官會議시의 총독훈시
 7. 會鮮사상사건 월표(11월분)
 8. 최근의 사상사건
- 조선중대사상사건은 46건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공산당사건 증거물寫」는 上海 海外연락부원이 조선중앙집행위원 앞으로 보낸 보고서이다.
- 「天道敎와 民族運動에 관한 論爭」: 天道敎 新派가 기관지 『新人間』 9月號(1932년)에 민족운동의 領導權은 天道敎가 파악한다는 一部 기사를 게재한 바, 共產主義者 俞鎭熙 등이 자기가 경영하는 기관지 『新階級』에 論駁文을 게재하여 “天道敎는 貞女를 갖춘 賣春婦” 라고 侮辱하여 양자 간의 논쟁이 발생 했다.
- 「하와이에서의 조선민족해방운동」: 1917년 12월 趙鏞夏가 하와이에 갔을 때, 李承晚·朴容萬의 주재하는 大韓國民會와 安昌浩가 주장하여 中央部를 샌프란시스코에 둔 國民報 등이 있어 조선독립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였으나, 朴容萬이 大韓獨立團을 조직·단장으로 분리해서 신문 『太平洋』을 발간하는 등 이승만과 대립 하였다. 1926년 大韓僑民團, 大韓同志會, 大韓獨立團 등이 일치단결하여 統一促進會를 결성하고 共同活動을 하다가 韓人協會 등으로 바뀜으로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이다. 神戶 지방재판소 검사국에서 京城地方法院 검사국으로 移送 되었다.
- 「조선총독부 고원·급사의 사상사건」은 金學憲 등의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1932년 12월 27일 京城地方法院 公判에 回付되었다.
- 「司法官회의시의 총독훈시」는 1923년 5월 11일, 1924년 5월 7일, 1925년 4월 30일, 1926년 7월 7일, 1927년 6월 23일, 1928년 10월 4일, 1929년 5월 17일, 1930년 6월 30일, 1932년 10월 21일에 실시되었다.
- 「全鮮사상사건 月表」를 보면 1932년 11월중 수리분의 刑法犯 및 特別犯法 위반사건



- 은 55건 1192명이며, 처분은 44건 698명, 미제 11건 494명이다.
- 「최근 사상사건」에는 1월 10일 조사분 4건이 수록되어 있다.